

멕시코 중앙은행 이사회 의사록 주요 내용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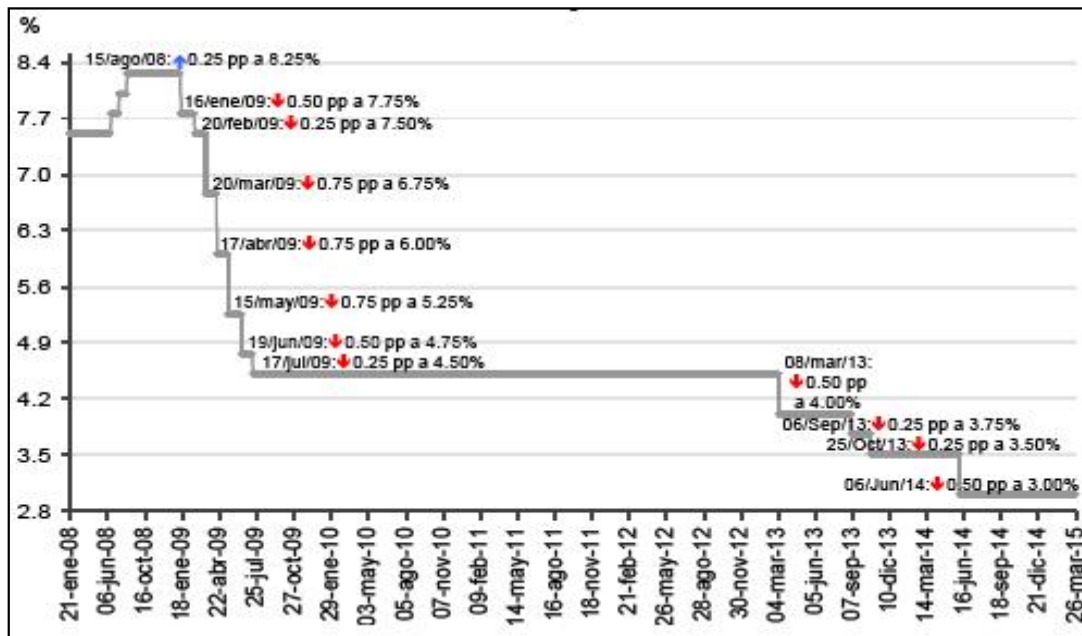
(2015. 4. 13)

멕시코시티사무소

1] 기준금리 결정 표결 결과

- 최근 공개된 멕시코 중앙은행(Banco de Mexico) 이사회 ('15.3.26 개최)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위원 5명 모두 멕시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.0%로 동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함

멕시코 기준금리 변동 추이



2] 계속되는 멕시코의 낮은 경제성장을 전망에 우려

- '15. 1분기 경제성장률은 아직 미발표 상황이나,
- 경기둔화로 '15년 멕시코의 연간경제성장률 전망치*는 계속 하향 조정 중

- * 경제전문가 앞 멕시코 중앙은행의 여론조사 실시 결과
(조사시점별 '15년 예상 멕시코 경제성장률)
3.50% ('14.12월) → 3.29% ('15.1월) → 3.08%('15.2월) → 2.95% ('15. 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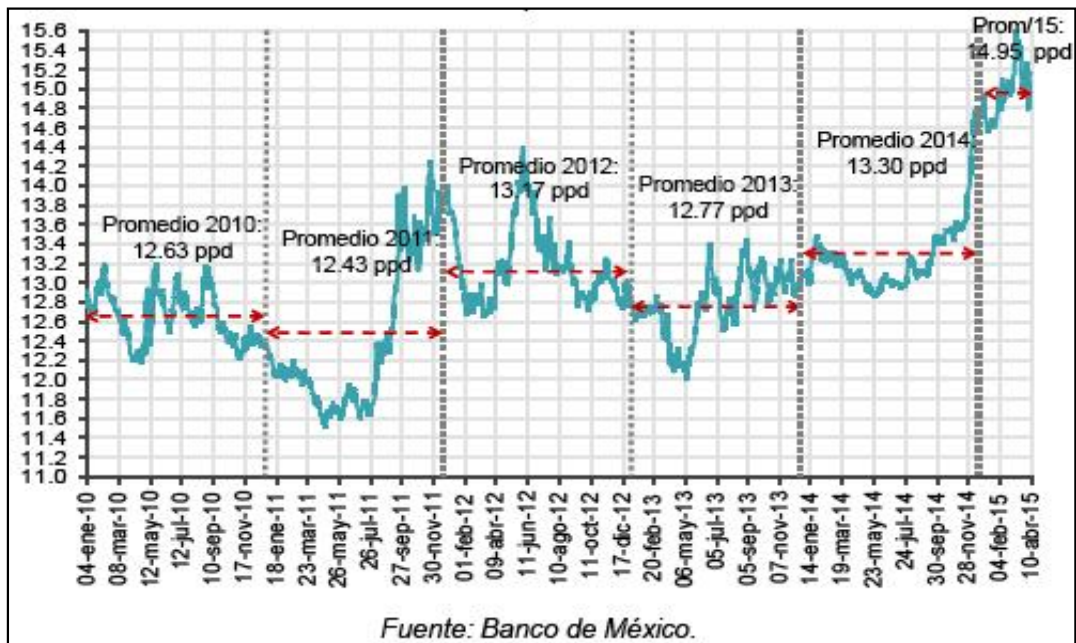
< 참 고 > 주요 기관별 '15년 예상 멕시코 경제성장률

- 멕시코 재무부(SHCP) : 3.2%~4.2%
- 멕시코 중앙은행 : 2.5%~3.5%

③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하에 관련 우려

- o 유가하락에 따른 국가재정 부족으로 '15년 중 낮은 경제성장률 달성 예상 및 미 연준(FED)의 기준금리 인상시기 도래 압박 등으로 멕시코 페소화의 추가 평가절하 가능성에 우려
- 멕시코 페소화는 '14. 11월 초 Peso 13.5503/USD 이후 '15. 4. 10 현재 Peso 15.1706/USD를 기록 중 (11.9% 페소화 평가 절하)

미 달러화 대비 멕시코 페소화 동향



- 재무부(SHCP) 및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멕시코 외환관리위원회에서는 “폐소화 가치방어를 위한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”을 결의 (‘15. 4. 8)
- 또한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인 Augustin Carstens도 “멕시코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연 3.0%의 목표 물가상승률 관리가 어렵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폐소화 가치 방어에 노력할 것”임을 재천명

4] 멕시코 기준금리 인상 시기

- 일부 위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전에 멕시코 폐소화의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므로 폐소화의 급락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또한 멕시코 금융시장의 전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
- 그러나 다수의 위원들은 선제적 금리인상 방안 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 관련 명확한 시점 등을 확인 한 후 대응하자는 주장을 했고 동 의견이 최종적으로 수용됨

⇒ 선제적 멕시코 기준금리 인상시 실익이 별로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평가함